연구개발계획서

1. 연구개발의 목표 및 필요성

목표: 인공지능/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항로표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

항로표지는 바다 한가운데 설치되어 수시로 파손/오동작의 체크가 어려움, 파손/오동작시 큰 사고로 이어짐, 고가의 시설물을 항로표지에만 활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

→ 스마트 항로표지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



동해 해상 사설항로표지 중 5% 파손 불량...해수청 정비·보수 나서 ... 2022.11.24. 동해 해상에 설치된 사설항로표지 중 5%정도가 파손 등으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해수정이 점검을 통해 정비·보수에 나서고 있다.24일 동해해양수산정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고성·숙조·삼척 등 지역내 28개사가 동해 ...



항로표지(예, 등부표) 파손

선박 충돌 등 항로표지 파손이 빈번하나 실시간 모니터링에 어려움이 있음



항로표지(예, 등부표)

1억 이상의 고가 장치이고, 2km 내외로 우리나라 해양에 4,700 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오직 항로표지로만의 기능을 수행

국내 현황

- 1) 원거리 원격 감시 연구
- 2) 상용통신망(이통3사), AIS, LTE-M, VDES, NB-IoT, LoRa, 위성 등을 통한 통신 연구
- 3) 뉴마린엔지니어링, 우리해양, 해광시그날 등 등부표 설치/유 지관리 업체 존재

국외 현황

- 1) 실시간, 고정밀의 항로표지 연구
- 2) 항로표지 관 정보교환 국제 표준 연구
- 3) 선박 충돌로 인한 파손 문제 연구
- 4) 세계 시장규모 60조

문제점

- 1) 인공지능/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항로표지에 관 한 연구 부재
- 2) 서로다른 여러 통신망 사용에 따른 이기종간의 통신 문제
- 3) 고가의 시설을 항로표지로만 활용

해결 방안

1) 인공지능 기반으로 파손/오동작 실시간 인지, 2) 해양 사물인터넷을 통해 파손/오동작 정보 전송, 3) 해양 온도, 생태계, 충격(지진/해일) 관측으로도 활용

※ <mark>항로표지란</mark> 등광(light), 형상, 색채, 음향, 전파 등의 수단으로 항,만,해엽,기타 대한민국의 내수,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지표로 운영되는 등대, 등표, 입표, (등)부표, 무신호소, 레이콘, DGPS(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) 등의 시설을 뜻함

연구 범위

- 1. 등부표 등의 항로표지 모형이 있다고 가정
- 2. 바다가 아닌 연구실내에서 테스트 진행
- 3. 항로표지 모형에 라즈베리 파이 임베디드시스템과 카메라, 충격센서 등을 설치하여 파손/오동작 모니터링 (인공지능 기술 적용)
- 4. LTE-M, 멀티홉 통신을 통해 파손/오동작 모니터링 신호 전송 연구 (해양 사물인터넷 기술 적용)
- 5. 온도 등 해양 생태계 센서를 추가하여 모니터링

내용 ·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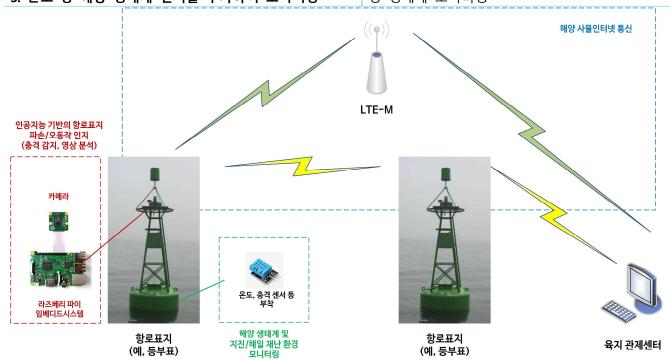
인공지능 기반으로 충격 등의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여 충돌/이상 유무를 판단

· 해양 사물인터넷 기반 모니터링

파손/오동작 등의 정보를 사진/영상 등으을 전송

·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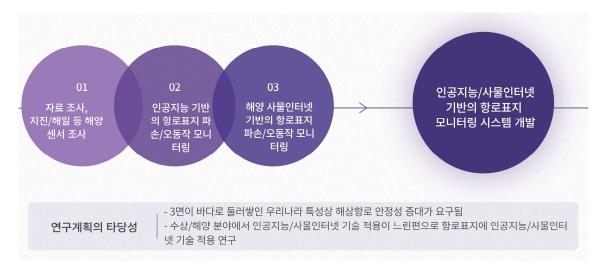
온도, 지진/해일 감지 등의 센서를 부착하여 해양 생태계 모니터링



2. 연구개발과제의 내용, 추진체계 및 일정

- 2-1. 연구개발과제의 내용(추진전략 및 방법)
 - 항로표지 중 등부표를 가정하여 인공지능/사물인터넷 기반의 파손/오동작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송 개발
 - 후속 연구를 통해 항로표지의 실제 테스트 구축 및 사업화

2-2.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



2-3. 추진일정



3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

3-1.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

○ 항로표지 파손/오동작 모니터링, 항로표지에 추가적인 센서를 부착하여 해양생태계 모니터링 등에 활용 가능

3-2.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

○ 해상항로의 안전성 증대



3-3. 성과 창출

- 연구를 통해 지적재산권 1건 확보
- 후속 연구를 통해 항로표지의 실제 테스트 구축 및 사업화
- 3면이 바다로 둘러쌓인 우리나라의 특성상 해상항로의 안전성 증대는 활용가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 향이 큼